

# “좋은역도 악역도 자연스럽게 목소리에 무게감 살리려 노력”

## ‘신입사관 구해령’ 중역... 이진 역할 박기용

광고가를 휩쓴 ‘뱀독춤’부터 드라마 ‘각시탈’, ‘리턴’ 속 악인까지, 배우 박기용(34)은 늘 강렬했다.

하지만 최근 중역한 MBC TV 수목극 ‘신입사관 구해령’ 속 그가 연기한 왕세자 이진은 단순히 강렬하기보다는 묵직하고 진중했다.

진은 자신의 이복동생 도원대군 이림(차은우 분)이 왕세자 자리에 더 맞다는 걸 알면서도 시기와 질투를 하기보다 그를 진심으로 아꼈고, 조선 시대 최초로 여사관 제도를 도입해 그들의 쓴소리를 마음에 담으려 노력했다.

1일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박기용은 “그동안 소위 기독권으로 불리는 악역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왕이었다. 처음이라 더욱 무게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연기를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사실 제가 선한 역도 많이 했는데 악역 스펙이 워낙 높다 보니까. (웃음) 그런데 언제 또 이번처럼 왕, 세자 역할을 해보겠어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캐릭터도 신선했고요. 제가 꼭 돋보이지 않아도 극 전체가 돋보이게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이라면 좋아요.”

그는 ‘신입사관 구해령’ 작품 자체에 대해서도 “조선 시대임에도 여사관들이 제 목소리를 낸다는 기획이 굉장히 신선했다”며 “너무 급진적으로 가면 말이 안 되지 자연스럽게 극이 흘러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어서 뿌듯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기용은 함께 호흡을 맞춘 차은우에 대해서는 “연기 경력이 길지는 않지만 예뻐할 수밖에 없는 친구다. 애교도 많고 먼저 다가온다”며 “은우는 옆에서 봐도 참 잘생겼더라”고 웃었다. 구해령 역 신세경에 대해서도 “호흡이 좋고 노련한 배우”라고 칭찬했다.

2005년 영화 ‘고담’으로 데뷔한 그는 어느덧 데뷔 15년 차다. “전 작품마다 ‘재발견’이라는 애길 듣는데, 그게 전혀 아쉽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요. 배우가 될 때 첫 목표가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걸 여전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매번 다르게 연기하려는 노력을 늘 알아봐 주셔서 감동을 하죠.”

박기용은 자신을 ‘촌스러운 사람’, ‘혈행이’로 정의했다. 그는 “하다 보니 고급스러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게 걸맞은 부분이 라고 오히려 재밌게 소화하는 것 같다”며 “악역 역시 기술이 많이 필



요한데, 그런 걸 잘 소화한다고 평가해주시면 울컥한다”고 했다. 그를 세상에 각인한 CF 속 ‘뱀독춤’에 대해서도 오랜만에 장난스럽게 언급했지만 그는 오히려 “평생 가도 상관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만큼 당시 제 모습이 여전히 흥미롭다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그걸 뛰어넘고 싶기도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 평생 그 수석이여 따라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연합뉴스

## 빨간날에 잊힌 진짜 의미...아리랑TV 개천절 특집

### ‘나우(NOW) 잊혀진 국경일’ 오전 8시 방송

아리랑TV는 오는 3일 개천절을 맞아 오전 8시 ‘나우(NOW)-잊혀진 국경일, 개천절’을 방송한다고 1일 예고했다.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의 개천절은 단군이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

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가장 ‘신화적’인 느낌이 강한 국경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천절의 더 큰 의미는 우리 민족이 수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원동력이 됐다는 데 있다. 실제로 개천절을 기념하기 시작해 이후 국경일로 선포된 것은 모두 일제강점기였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국민은 개천절을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 정도로만 여겨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이 드물다.

‘나우-잊혀진 국경일, 개천절’에서는 개천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무관심에 잊혀가는 개천절의 숨은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본다.

한국에 온 지 11년 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의 라힐 아마다바는 국내 최초 외국인 역사 해설사로서 쉽고 재밌는 개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단군신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거리극 ‘당골포차’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 트와이스 초동 15만4000장 돌파...걸그룹 신기록

그룹 트와이스 미니 8집 ‘필 스페셜’(Feel Special)이 발매 첫 주 판매량(초동) 15만4000장을 돌파하며 한국 걸그룹 신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30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음반판매량 집계사이트 한터차트를 인용해 ‘트와이스 필 스페셜’이 23~29일 15만4000여장의 판매고를 달성, 걸그룹 역대 최고 판매량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트와이스는 지난 4월 발매한 미니 7집 ‘팬시 유’(FANCY YOU)로 초동 15만 1000장을 넘기며 걸그룹 초동 판매량 최고 수치를 탈환한 바 있다. 종전 1위는

아이즈원의 두 번째 미니앨범 ‘하트아이즈’(HEART\*IZ-13만2천장)였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국내와 일본에서 누적 앨범 판매량 750만장을 달성했다. 2015년 10월 20일 데뷔한 이들은 ‘치어 업!’으로 시작해 ‘TT’, ‘라이키’, ‘하트세이커’, ‘왓 이즈 러브?’, ‘에스 오어 에스’, ‘팬시’ 등 11곡 활동곡을 모두 히트시켰다.

한편 트와이스는 데뷔 4주년을 기념해 10월 20일 고려대학교 회정체육관에서 팬미팅 ‘원스 핼러윈 투’(ONCE HALLOWEEN 2)를 연다.

/연합뉴스



##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한혜진 7개월만에 복귀

MBC TV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잠정 하차한 모델 한혜진(36·사진)이 7개월 만에 돌아온다.

‘나 혼자 산다’ 측은 1일 “한혜진이 오는 4일 방송에 출연한다. ‘무지개 화원’으로서 맞는 아이템이 생기면 언제든지 출연할 예정”이라며 그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한혜진은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던 MC 전현무와 공개적으로 교체했으나 지난 3월 결별 사실을 알리며 전현무(42)와 함께 ‘나 혼자 산다’에서 잠정 하차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⑨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⑪	00 한국인의 밥상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동백꽃 필 무렵(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⑫	00 KBS 뉴스 12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12 MBC 뉴스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테마스페셜
①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KBS 재난방송센터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KBS 뉴스 10 남북의 창 50 전국노래자랑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뉴스브리핑
③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박사봇 50 빠샤 메카드	
④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재)
⑤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쏠!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최중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⑦	00 KBS 뉴스 7 40 미니다Q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⑧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⑨	00 KBS 뉴스9			
⑩	00 재즈콘서트 '낭만 목포'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농업에도 부는 한류, K-Food>	00 시크릿 부티크
⑪	35 UHD 쇼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썸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⑫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명 유치원	14:45 물랑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동남아 소수민족 기행 -숨의 부족들로>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시골 부자 3부 꽃문어, 네 덕에 산다>
09:00 출동! 슈퍼왕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원더볼즈	15:55 출동! 슈퍼왕스(재)	22:45 극한직업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3:35 EBS 초대석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24:25 지식의 기쁨(재)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4:5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퍼 피그(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일(음 9월 4일 壬申)

<p>36년생 상호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48년생 거시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대범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의연함이 요구된다. 60년생 다양한 기회를 갖되 신중히 선택하라. 72년생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84년생 한시를 놓을 수 있는 판국으로 가다가 잡힐 것이다. 96년생 의심스러운 국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4, 27</p>	<p>30년생 양질을 추구해야 합리적이다. 42년생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54년생 소강상태 국면을 타개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66년생 허심탄회한 토로가 물꼬를 트게 하리라. 78년생 판국을 좌우할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90년생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5, 03</p>
<p>37년생 방향과 방법의 선택이 길흉을 좌우 하리라. 49년생 돌발 상황이 예상되니 대비해야 한다. 61년생 여대까지 내 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리라. 73년생 현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확실히 벗어나야만 한다. 85년생 각각 달라서 일정하지 않으리라. 97년생 가까운 이와 함께 하면서 가다가 잡히겠다. 행운의 숫자 : 63, 94</p>	<p>31년생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통감하게 될 것이다. 43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이다. 55년생 성심으로써 대해야만 하느니라. 67년생 순발력 있게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 79년생 성과물이 생길 수도 있으나 여과하지 않으면 부딪스러움을 면치 못한다. 91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많음을 감안 하자. 행운의 숫자 : 69, 31</p>
<p>38년생 수습하여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리라. 50년생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62년생 목표를 향해서 발돋움 하게 된다. 74년생 미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해 두어야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86년생 공들인 노력에 정비례해서 얻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98년생 가급적 빨리 조처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5, 41</p>	<p>32년생 잊고 있다면 놓칠 수도 있다. 44년생 멀리 내다보면 서 관계를 설정하라. 56년생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속 시원히 알게 된다. 68년생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80년생 순조로움을 더 하리라. 92년생 기발한 요령 보다는 꾸준한 정진에 더 나은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7, 39</p>
<p>39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를 변경하는 판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51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준다. 63년생 시간과 일에 대해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75년생 한시바빠 본분으로 들어가야 옳다. 87년생 보완할 수 있는 장치나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99년생 관계를 개선하면 예기치 못한 기회들과 접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9, 42</p>	<p>33년생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45년생 생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니 박차를 가하라. 57년생 생활에 많은 보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9년생 원인 분석을 투명하게 해야만 대책을 바르게 세운다. 81년생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93년생 상황 물리에 어긋나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2, 30</p>
<p>40년생 실행 하더라도 정밀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52년생 이루어 놓고 말해도 늦지는 않으니 입을 꼭 다물어라. 64년생 일도양단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76년생 길한 빛을 띠기 시작 했다. 88년생 패거리를 이루리라. 00년생 표면과 내용이 모두 완벽해야 의미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4, 18</p>	<p>34년생 예리한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진행을 해야 한다. 46년생 적절한 연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58년생 궁금에 왔던 바를 명쾌하게 파악한다. 70년생 품조심이 제일이니 항상 안전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기하라. 82년생 가히, 팔각성대할 만하다. 94년생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5, 10</p>
<p>41년생 주변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하라. 53년생 기분에 충실 한다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65년생 할 일들이 많아서 바쁘다. 77년생 내일 벌어질 수도까지 감안한 후에 결정을 하라. 89년생 빼어난 감동을 하리라. 01년생 고정관념에 사로잡힌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행운의 숫자 : 11, 72</p>	<p>35년생 마음을 비우고 일한다면 난관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느니라. 47년생 예상 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59년생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71년생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83년생 단순 판단한다면 의외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95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96, 47</p>